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25% 동결

환율·경기흐름 '불확실' 금리조정 여력 남겨...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높아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인하한 뒤 7월에도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8월 금리동결은 지난 6월 선제적으로 단행한 금리인하 효과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향후 흐름을 지켜보면서 정책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금리조정 여력을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8월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하반기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6월 금리인하 정책효과와 정부의 재정정책 기대,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분일 이베스트 연구원은 "지난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단행은 선제적 성격이 강했다"며 "이미 한은 기준금리가 1.25%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하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연내 연준 금리인상이 미국 경기 펀더멘탈 개선을 반영하기 때문에 리스크 온(Risk-On) 재료가 작용할 수 있다"며 "리스크 온에 따른 원화 강세 국면이 지속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실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더라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한은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로 단행된 6월 선제적 금리 인하, 브렉시트 영향 등 당분간 거시 경제 상황 지켜볼 필요성, 추경 진행과정이 다소 지연되는 양상, 2분기 지표 호조에 따른 관망 심리 등에 따라 8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시장에서는 10월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를 포함해 하반기 경제 하방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만큼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도.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 심화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수입물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저물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통위 내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조용구 연구원은 "7월 의사록에서



갤럭시 노트7 미디어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7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모델들이 갤럭시 노트7을 소개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7은 19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64GB 단일 모델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98만 8,900원이다.

금통위원 다수가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를 우려했고, 향후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며 "또 최근 원화 강세와 자본유출 리스크 감소, 3분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재개, 9월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 하반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에 10월 연내 추가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플레

이션 국면이 종료, 경기바닥을 형성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 통화정책도 올해 하반기에 금리인하 기조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하반기 들어 경기절벽 우려로 인해 추경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정책공조 차원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다만 경기상황 및 물가를 감안할 때 추가 금리인하는 1회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자금융거래 보안프로그램 줄인다

절반수준으로... 공인인증서 외홍채 등 생체인증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빈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면 백신,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개인방화벽 프로그램 등 평균 4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여러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시 깔아야 해 10여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PC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안프로그램 간에 상호 충돌해 PC가 오동작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보안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메뉴 또는 기능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게 기본 방향

이다. 일단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자금이체 등의 경우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빈도를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과 홍채, 정맥 등 다양한 생체인증 수단 도입을 유도한다.

다만 새로운 인증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50만원 이하)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차 업계, SUV·친환경차 등 차별화로 '승부'

현대·기아 그랜저·i30·모닝... 르노삼성 QM6... 한국GM 2세대 쉐보레 볼트 출시

지난 상반기 주로 세단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던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차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선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SUV, 친환경차 등 차별적인 모델들을 대거 내세우면서 승부수를 띄울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아이오닉과 니로 등 친환경차 라인업도 내놨지만 중형 세단인 K7을 지난 1월 국내에서 출시해 상반기에 5000대가량 판매했다.

르노삼성의 SM6는 지난 3월 출시된 이래 상반기에만 2만7000여대를 판매, 돌풍을 일으켰다.

한국GM의 말리부는 상반기에 1만 2000여대가 판매된 가운데 지난 4월

말 신형 모델 출시 이후 5~6월 판매량만 1만대 가까이 이르렀다.

이처럼 지난 상반기 세단 위주로 경쟁이 이뤄진 국내시장이 하반기에는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 각 업체들은 차별화된 신차를 통해 빈틈을 공략하는 모양새다.

현대·기아차는 준대형 세단과 해치백, 경차 등 다양한 모델의 신차를 내놓으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자세다.

특히 2011년 이후 6년간 버티던 그랜저의 새 모델(IG)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놓는다는 전략이다. 현재 시판 중인 그랜저는 월 5000~1만대 수준의 판매고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 3000여대 수준으로 판

매량이 감소한 상태다.

더욱이 올 하반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의 출시 시기를 당초 연말에서 한 달가량 앞당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음달 해치백 모델인 i30을 출시하는 한편 기아차는 경차인 모닝을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모닝의 경우 최근 경쟁모델인 한국GM의 쉐보레 스파크에 입지를 위협 받아왔는데 신모델을 통해 반격에 나선다는 의지다.

상반기에 중형세단 시장을 달궜던 르노삼성의 경우 하반기에는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의 경쟁에 불을 붙인다는 전략이다. /뉴시스

이 회사는 2007년 12월 국내에서 출시한 중형 SUV인 QM5가 몇 차례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거치긴 했지만 출시 10년이 다 돼가면서 노후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판단아래 후속 모델로 다음달 QM6를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르노삼성은 QM3로 국내 소형 SUV 시장을 달궜지만 이후 나온 쌍용차의 티볼리에 밀려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SM6로 되찾은 활력을 계기로 QM6를 통해 중형 SUV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GM은 지난 6월 부산국제모터쇼를 통해 공개한 2세대 쉐보레 볼트(Volt)를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주행거리 연장 시스템을 통해 순수 전기주행으로는 최대 80km,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방식으로는 최대 676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불을 붙인다는 전략이다. /뉴시스

'리니지 파워' 엔씨소프트 2분기 실적 호조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로 유명한 엔씨소프트가 2분기 매출 2405억원, 영업이익 861억원, 당기순이익 904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 28%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56% 올랐다.

제품별 매출로는 '리니지'가 9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998년 9월 처음 서비스된 리니지는 넥슨 '바람의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 1세대 PC온라인 게임이란 평을 받고 있다.

리니지에 이어 2003년 나온 '리니지

2'가 191억원 매출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블레이드&소울' 489억원, '아이온' 176억원, '길드워' 159억원이었다.

2분기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 1483억원, 북미·유럽 404억원, 일본 130억원, 대만 118억원 순이었다.

로열티 매출은 270억원이었다. 엔씨소프트 상반기 매출은 4814억원, 영업이익 1619억원, 당기순이익 15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19%, 49%, 68% 상승한 수치다. /김민근 기자

23일부터 무작위 철도보안검색 실시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테러의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철도 보안검색을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철도보안검색은 철도역사, 승강장 입구, 대합실 등에서 불특정 시간대에 무작위로 이동식 검색을 실시한다. 검색 소요시간은 약 30초다.

철도경찰은 고속철도(KTX) 주요역(서울·오송·익산·부산역)에서 휴대물품 소지 여객과 거동수상자 위주로 검색한다. 열차에 탑승한 철도경찰이 수하물에 대한 검색도 병행한다.

철도보안검색을 거부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라 열차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뉴시스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